

첼령이라고 하면 예로부터 오르면서 40리, 내리면서 40리로 아흔아홉굽이나 된다는 험한 산세로 알려져있다.

이곳 지형이 얼마나 험하였으면 옛 사람들이 《신령도 손바닥만 쓸면서 뒤걸음질친다.》라고 하였겠는가.

하기에 첼령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군사요충지로 되어왔다. 고려의 학자였던 리곡은 기행시 《회양 첼령》에서 이렇게 썼다.

《첼령은 나라의 동쪽 요해지로서 이른바 장부 한명이 판문을 지키면 만명의 군사들도 열지 못한다는 곳이다.》

이처럼 높고 험한 천연요새로 알려졌던 첼령이 오늘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선군령도의 상징으로 세상이 다 아는 첼령으로 되었다.

첼령이

그 것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첼령을 넘고 또 넘으시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굳건히 지켜주시었기때문이다.

첼령이라는 이름만 불러보아도 그이께서 헤쳐가신 선군길에 안겨오고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불같이 사신 장군님의 한생이 어려와 눈시울을 적시는 공화국의 인민들이다.

조국안에 드리운 시련과 난관을 선군의 보검으로 지켜주시기 위해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첼령을 비가 내려도 넘으시었고 눈을 맞으면서도 넘으시었으며 밤에도 넘고 새벽에도 넘으시었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몸소 운전대를 잡으시고 험한 첼

전하

령길을 뚫으시었다. 최고사령관이 전선길을 알아면 운전대를 잡고 달려보아야 한다고 하시며 그이께서는 구배가 심하고 미끄러운 첼령길을 자신께서 직접 차를 몰고 오르시었다고 한다.

또 어느해인가는 첼령을 넘어 최전연을 찾으신 장군님께 인민군장병들이 이제 더는 험한 첼령을 넘지 말아달라고 청을 드리었을 때 그이께서는 이만큼 첼령을 주셨단 말이지라고 하시며 호랑이처럼 웃으시고나서 최고사령관이 전선이 위험하고 천길 낭떠러지가 무섭다고 비켜선다면 누가 나의 병사들을 찾아가겠는가, 언 땅에 배를 붙이고 밤을 지새 때

는

고향집생각보다 먼저 최고사령관을 더 잊지 못하며 그리워하고있는 병사들을 앞에 두고 나에게서 첼령졸업증이란 있을수 없다, 나의 첼령행전선길은 앞으로도 계속될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이렇듯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켜,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안녕을 위해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이 나라 군대와 인민이 그토록 바라던 《첼령졸업증》을 끝끝내 받지 않으신채 선군장정의 머나먼 길을 걷고 또 걸으신 장군님이시었다.

이 나라의 한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다.

장군님 사생결단의 의지로 넘

사연

은신 이 첼령이 있어 침략의 불구름 첼령을 넘어오지 못했거니

이 령을 넘어 돌아오실 때에는 평화로운 인민의 웃음소리 안고오셨어라 자주적삶을 누려가는 행복한 인민의 날과 날은 온 나라에 넘치게 안고오셨어라

정녕 장군님께서 온갖 고생 다하시며 넘고넘으신 첼령의 험한 령길들이 있어 오늘 공화국은 불매의 사회주의 강국으로 존엄떨치

사연

며 이 땅우에 인민의 꿈과 리상을 현실로 안아오고있는것이다. 알 마 전 경 에 하 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찌는듯 한 삼복의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고산파수농장을 현지지도 하시었다.

2 000여정보의 드넓은 땅에 눈부리 아득히 펼쳐진 농장의 전경을 부감하시던 그이께서는 얼마나 보기 좋소, 첼령아래에 사회주의선경, 인민의 리상향이 활짝 꽃피나고있소, 아마 시민들이 이곳에 서면 시상이 절로 떠오를것 이라고 하시며 끝간데없이 펼쳐진 파수의 바다라고 하시었다.

그리시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의 발자취가 굵이 굵이 어려있는 첼령아래에 대규

모파수농장이 건설된것은 그 의미가 참으로 크다고 하시면서 세계굴지의 청춘파원으로 일신된 고산파수농장의 력사의 첫째지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쓰시었다는 뜻깊은 말씀을 하시었다.

장군님께서 사생결단의 의지를 안으시고 무려 18차례나 넘으신 첼령, 그 아래 아득히 펼쳐진 사과바다, 참으로 의미심장하다.

이것은 강성국가건설도, 인민의 력원도 오직 강력한 군력으로 만 담보될수 있고 그 역력력아래서만 지켜질수 있다는 승리와 번영의 첼리를 온 세계에 가르쳐주는 조선의 현실이다.

첼령은 오늘도 길이 전하고 있다.

공화국의 위대한 승리와 영광, 찬란할 번영과 미래도 선군이 있어 영원히 담보되고 지켜진다는 것을...

본사기자 김 강 철



위대한 령장의 선군장정으로 빛나는 첼령



첼령아래 펼쳐진 대규모의 고산파수농장

잊지 못할 8월의 화폭이 새겨주는 첼리

대동강변을 따라 평양의 련광정이며 모란봉의 울림대근처는 산책을 즐기는 사람들로 붐빈다. 그들은 추녀들린 정각의 마루며 기둥 하나하나를 무심히 대하지 않고있다. 그럴만도 하다. 근 70년전 8월의 사변이 그대로 스배여있는듯싶은것이다. 당시 조국해방으로 온 겨레가 마냥 가슴 부풀 때에 평양 시민들은 바로 여기서 종일 출판을 벌려놓았다는것이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세대들의 추억담이다.

1945년 8월 이 강토는 말 그대로 감격의 열파로 진동하였다.

평양에서 출판이 벌어질 때 서울에서는 려운형, 허헌, 홍명희 등 명망가들이 김일성장군환영준비위원회를 내왔고 서울역은 수천 수만의 시민들로 매일같이 인산인해를 이루고있었다. 그들속에는 당시 서울대학교 학생이었던 김동진도 있었다.(그는 후날 조선전쟁이 한창일 때 북으로 왔다.) 그의 회상에 의하면 세상물정을 알기 시작한 대동강입구 교시절부터 축지법으로 해운군대를 취락력락하시며 처갈 기신다는 수령님을 전설적 영웅으로 숭배했던 그는 서울강안에 파다하게 떠도는 김일성장군님이 서울에 입성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학

우들과 함께 서울역광장으로 출달을챜다고 하였다. 군중의 머리우에서 펴터이는 수많은 환영프랑카드들과 곳곳에서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전설담, 후문담을 띄우며 밤을 지새우던 서울시민들의 모습 이 늘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시민들이 떨쳐나 서울역앞에 큼직하게 세운 술대문에 창경원에서 소담한 술가지를 쥐이다 성의껏 꽃았던 것이다.

기나긴 암흑의 밤과 지루한 노예살이를 끝장낸 우리 민족은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을 끝없이 흠모하여 목청껏 만세를 터치었다. 감격과 환희의 눈물을 머금고 목매여 울고우는 겨레의 마음마다에 솟구쳐오른 소중환 감정은 다시 찾은 민족의 력사와 자기 운명에 대한 귀중함이었다.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기 위해 스무해세월을 바쳐야 했던 그대를 더듬으시며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망국은 순간이요 북국은 천년이라는것이 항일혁명 20년의 로정을 걸으면서 얻은 하나의 교훈이었다고, 그것은 잃기는 험해도 찾기는 험든것이 바로 조국이라는 뜻이라고, 순간에 잃은 조국을 찾그라고 수심된 지어는 수백년의 고생을 해야 하는것이 세상의 준엄한 리치이라고 하시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업적토론회 영국에서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선군혁명명도업적토론회가 선군철예 증음하여 영국 런던에서 진행되었다.

토론회에는 영국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영국조선친선협회 대표는 다음과 같이 토론했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54돌이 되는 8월 25일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의의를 가지는 날이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서는 1960년 8월 25일 조선인민군군위 서울류경주속105땅코스단을 찾으시었다.

그이께서는 이때로부터 수많은 인민군부대들을 시찰하시며 군대가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건설에서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도록 헌명하게 이끄시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서는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뜻박에 서거하시고 원이은 자연재해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압살책동으로 나라가 최악의 시련을 겪던 지난 세기말 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드시었다.

그이의 정력적인 선군령도 밑에 조선에서는 혁명적군인정신이 창조되었다. 사회적으로 군대의 투쟁정신과 기풍을 따라배우기 위한 운동이 힘있게 벌어졌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선군위업을 받들어 조선인민군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실뿐 아니라 군대가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서도 돌파구를 열어나가도록 헌명하게 이끄신다.

영국조선친선협회 서기장은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업적에서 가장 중요한것

력사를 소급해보면 알수 있다. 인디아가 영국의 발밑에 있다 200여년만에 멍에를 벗었고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는 300여년, 알제리는 130여년, 스리랑카는 150여년 그리고 웰남은 근 100년만에야 독립을 보았다. 약 소민족이 세대를 이으며 치른 망국의 대가는 이렇게 큰 것이다.

40여년세월 조선땅을 짓밟고 조선민족을 노예화한 일제의 지배는 강탈과 파괴, 살륙만행에 있어서 동서고금 그 어느 파썸세력의 포악성과 야수성, 괴뢰치성을 통가하는 전대미문의 민족말살통치였다. 영국 런던종합대학의 한 교수가 일본의 지배주의정책으로 1920년대부터 조선사람들의 키가 작아지기 시작했다고 한것만 봐도 일제의 조선민족말살정책이 얼마나 극악무도했는가를 알고도 남음이 있는것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업적을 청송하여 세워진 모란봉기슭의 개신문이 전하는 것처럼 조국해방은 10대의 시절에 애국의 길에 나서서여 존경하는 부모님들을 이국의 거처론 산아에 물으시고 사랑하는 동생분들과 생리별하지 않았던 안되는데 모진 슬픔과 피로움도 지련의 뜻과 힘으로 이겨내시며 오로지 애국위업에 한

몸을 기꺼이 내대신 그이의 희생적인 헌신이 안아온 민족사적대업이었다. 설한풍 휩쓰는 백두밀림과 만주광야에서 온갖 풍상고조를 다 겪으시며 조선독립, 민족해방을 위하여 국가적 후방도 정규군의 지원도 없는 험악한 조건에서 무장항전을 벌리신 수령님이 아니시였더라면 남몰처럼 백년, 수백년의 망국생활 아니 영영 지리멸렬되는 신세를 면치 못했것이라는것은 어제도 오늘도 우리 민족이 대를 이어 첼리로 걸감하는 현실이고 진실이며 그이에 대한 절절한 경모의 분출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국을 잃으면 살아도 죽은 목숨과 같다, 망국노가 되지 않으려 거든 나라를 잘 지키라, 나라 잃은 설움을 통곡하기 전에 조국을 더 부강하게 하고 막을 한개라도 더 주어야가 성세를 높이 쌓으라고 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간곡한 당부를 유훈으로 삼고 좌우명으로 여기고 조국수호와 강성국가건설에서 애국의 몸과 마음을 다 바치고있는 것이다.

망국과 북국의 의미에 대해 누구나 되새겨보게 되는 8월이다.

리치백로인과 전민항전론

주제22(1933)년 가을 소왕청유격구에는 5 000여명의 일제의 대병력이 달려들었다. 항일유격대는 2개 중대의 인원뿐이었다. 온 유격구가 김일성장군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수령님께서는 리치백로인의 권유로 그의 집으로 가시였고 그날 밤 로인과 잠자리를 같이하게 되시었다. 시간은 가는 데 웬일인지 로인은 내쳐 한숨만 쉬며 잠에 들지 못하고 있었다. 수령님께서서는 이불침을 찢으며 그에게 왜 잠잠한숨만 쉬는가 물으시었다.

그러자 로인은 적들이 유격구문밖에까지 와서 진을 치고있는데 배포유하게 잠을 잘수 없다고 하였다. 그의 말을 들으신 수령님께서서는 그래서 자신께서도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시고는 그에게 어쩌면 좋겠는가고, 적은 수천명이나 되는데 소양창을 지키는 우리 군대는 적의 1/ 100이나 되나마나 하니 어쩌면 좋겠는가 하시였다. 말없이 담배를 피우며 한동안 기척이 없던 그는 격한 어조로 병졸이 부족하면 자기도 대장의 부하가 되겠다고, 모두가 싸움군

이라는 말만 나와도 인민에게 안겨주실 행복부터 생각하시며 참으로 깊은 의미를 담아 하신 장군님의 말씀이었다.

목양이 대지를 뜨겁게 달구어주던 삼복이 지나간 이 무렵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하늘같은 인민사랑의 력사를 전하는 한련의 일화가 숨엄히 새겨졌다.

주제98(2009)년 8월 13일, 그날은 말복이었다고 한다. 이날 일꾼들과 자리를 같이하시던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오늘이 말복이지, 그러니 더위도 다 지나갔으만 하고 조용히 외우시었다.

홀랑 산삼벌창강릉군의 나날을 돌이켜보시는가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계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일꾼들을 둘러보시며 기쁨과 희열에 넘친 어조로 이렇게 말씀을 이으시었다.

동무들은 이 말복뒤에 후복이 있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그 후복은 바로 《후오복》이다. ... 말복뒤의 《후오복》, 북

항일대전의 나날에

리치백로인과 전민항전론

주제22(1933)년 가을 소왕청유격구에는 5 000여명의 일제의 대병력이 달려들었다. 항일유격대는 2개 중대의 인원뿐이었다. 온 유격구가 김일성장군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수령님께서는 리치백로인의 권유로 그의 집으로 가시였고 그날 밤 로인과 잠자리를 같이하게 되시었다. 시간은 가는 데 웬일인지 로인은 내쳐 한숨만 쉬며 잠에 들지 못하고 있었다. 수령님께서서는 이불침을 찢으며 그에게 왜 잠잠한숨만 쉬는가 물으시었다.

그러자 로인은 적들이 유격구문밖에까지 와서 진을 치고있는데 배포유하게 잠을 잘수 없다고 하였다. 그의 말을 들으신 수령님께서서는 그래서 자신께서도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시고는 그에게 어쩌면 좋겠는가고, 적은 수천명이나 되는데 소양창을 지키는 우리 군대는 적의 1/ 100이나 되나마나 하니 어쩌면 좋겠는가 하시였다. 말없이 담배를 피우며 한동안 기척이 없던 그는 격한 어조로 병졸이 부족하면 자기도 대장의 부하가 되겠다고, 모두가 싸움군

이라는 말만 나와도 인민에게 안겨주실 행복부터 생각하시며 참으로 깊은 의미를 담아 하신 장군님의 말씀이었다.

목양이 대지를 뜨겁게 달구어주던 삼복이 지나간 이 무렵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하늘같은 인민사랑의 력사를 전하는 한련의 일화가 숨엄히 새겨졌다.

주제98(2009)년 8월 13일, 그날은 말복이었다고 한다. 이날 일꾼들과 자리를 같이하시던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오늘이 말복이지, 그러니 더위도 다 지나갔으만 하고 조용히 외우시었다.

홀랑 산삼벌창강릉군의 나날을 돌이켜보시는가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계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일꾼들을 둘러보시며 기쁨과 희열에 넘친 어조로 이렇게 말씀을 이으시었다.

동무들은 이 말복뒤에 후복이 있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그 후복은 바로 《후오복》이다. ... 말복뒤의 《후오복》, 북

이라는 말만 나와도 인민에게 안겨주실 행복부터 생각하시며 참으로 깊은 의미를 담아 하신 장군님의 말씀이었다.

목양이 대지를 뜨겁게 달구어주던 삼복이 지나간 이 무렵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하늘같은 인민사랑의 력사를 전하는 한련의 일화가 숨엄히 새겨졌다.

중련 같은 청년들, 유격구의 남녀로소 전체 인민들을 불러일으키야 한다. 전민항전만이 승리의 출로이다. ...

수령님께서서는 이러한 구상에 따라 유격대뿐아니라 유격구의 전민을 방위전에 불러일으키시었고 전민항전으로 100배의 적을 타승한 기적이 창조되었다. 전민항전은 수령님의 인민적인 사색과 탐구의 고귀한 열매의 하나였다. 그이의 사색과 탐구는 언제나 인민의 마음, 인민의 생각과 하나로 이어져있었다.

네 해전의 예언

우리 나라가 언제면 해방이 되겠는가. 자퍼거우에 사는 조선사람들은 모여앉으면 저마다 늘 이렇게 속구구하며 이야기를 주고받곤 하였다. 그런데 그즈음에 마을에 떠도는 소리는 다 불길한것들뿐이었다. 1941년 봄에는 쏘련과 일본이 화전을 하였다는 말이 돌았고 여름에는 도이칠란드군대가 쏘련의 한 도시를 점령하고 그 다음날에는 또 어느 도시를 먹었다는 소식이 전하여졌다.

어느날이었다. 마을의 좌상로인은 한숨을 쉬며 흥흥한 소문을 듣고보면 아마 당대에 고향땅에 가기는 틀렸

었다. 평양방직공장에서 김정숙해군대학으로, 송도원청년야외극장에서 새로 건설된 보통강상정에서로, 북창학력발전련합기업소와 2.8직동청년탄광에서로...

개건화장된 구장양어장을 찾으신 장군님께서 이 무더운 때에 잠시라도 시원한 곳에서 피로를 푸셨으면 하는

것이 우리들의 간절한 소원이라고 아뢰이는 일꾼들에게 《나는 그날밑에서 행복을 찾지 않습니다.》라고 뜨겁게 말씀하시며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신 이야기고 그대에 있는 이야기이다.

통에 뻥뻥, 서에 뻥뻥 초강도현지도도, 축지법현지도도

를 이어가시는 우리 장군님의 강행군속도가 그대로 강성국가건설속도, 비약하며 내달리는 조국의 대고전진군속도가 되어 이 땅우에 행복의 오복백과가 무르익는 풍성한 수확의 계절이 펼쳐지게 되었던것이다.

인간고산파수농장을 찾으시어서는 농장의 모든 파수원들에 사과가 땅이 꺼지게 달리

마을에 들리시었다. 마을사람들은 그이께 조선이 언제쯤 독립되는가고 말씀을챜다. 그들에게 복잡한 세계정세와 파시즘멸망의 불가피성, 항일유격대의 전과도 알려주신 수령님께서서는 확신에 넘치시어 앞으로 3~4년간 더 참고 기다리라고, 그러면 꼭 광명한 날이 온다고 말씀하시었다. 조성된 정세와 적자간의 력량판계를 구체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한 과학적인 예언이었고 또 기어이 그렇게 하고야말 것이라는 확신이 담겨진 말씀이었다. 그때로부터 마을사람들은 손꼽아 그날을 기다렸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 3년째 되는 해에도 해방은 오지 않았다. 실망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다. 그런데 예언의 마지막 4년째 해인 1945년 8월 정말 일체가 패망하였다는 소식이 마을에 날아들었다. 수령님께서 마을을 다녀가신지 내한만에 조국이 해방되었던것이 다. 마을의 좌상로인이 사람들에게 물음을 치며 하였다. 《파시 우리 장군님은 하늘이 낸분이 분명구나. 그렇지 않구사야 칠혹같이 압당하던 그 세월에 어떻게 오늘을 내다보실수 있던 말인고.》

본사기자

게 하여 파일항기가 넘쳐나고 파일파도가 세차게 일어나도록 할데 대하여 말씀하시며 가까운 년간에 도달해야 할 목표와 과일생산을 늘일수 있는 방도를 가르쳐주시고 천치활용유공장을 찾으시여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애국업적에 의하여 탄생한 공장, 장군님께서 단신으로 겪으신 고생과 갖바꾸어 후대들에게 물려진 이 공장에 와보니 이처럼 현대화된 훌륭한 공장을 장군님께서 한번도 보여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가슴을 허빈다고, 천치활용유공장은 유복자공장이라고 하시며 장군님의 헌신과 로고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절절히 당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인민을 위한 헌신의 자욱을 새겨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들며 우리 인민들은 말복뒤에 《후오복》이 있다고 하시며 인민을 위한 천만고생을 락으로 삼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헌없이 숭고한 인민사랑의 력사를 돌이켜보며 격정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본사기자 리 경 월